

The Pearl of Torah

Luke 13:1–10 in Light of Numbers 25:10–29:40 and Yerumiyahu 1:1–2:3

(*"The Call to Repentance, Covenant Zeal, and the Fruit YHWH Seeks"*)

Core Passage

Luke 13:1–10 records Yehoshua's response to two recent tragedies. Rather than allowing His listeners to speculate about the sins of the victims, He calls everyone to repentance: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He then tells the parable of the barren fig tree that is given one more opportunity to bear fruit before judgment falls.

핵심 본문

누가복음 13:1–10 에서 예호수아께서는 최근 일어난 두 비극을 언급하시며, 희생자들의 죄를 추측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심판 전에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야훼의 오래 참으심을 가르치십니다.

Torah Layer (Numbers 25:10–29:40)

Torah Connection

The Torah portion opens immediately after the plague at Baal-Peor. Phinehas turns away YHWH's wrath through covenantal zeal, and YHWH establishes with him a "covenant of peace" (Num. 25:10–13).

Immediately afterward comes another census (Num. 26). One generation has largely perished because of unbelief and rebellion, while another stands ready to inherit the land.

The daughters of Zelophehad (Num. 27) demonstrate faithful trust in YHWH's promises, while Yehoshua (Joshua) is commissioned to lead Yisrael.

토라의 연결

이 토라 본문은 바알브올의 재앙 직후 시작된다. 비느하스는 언약에 대한 열심으로 야훼의 진노를 돌이켰고, 야훼께서는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다(민 25:10–13).

이어지는 민수기 26 장에서는 새로운 인구조사가 이루어진다. 불신앙으로 인해 이전 세대는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한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야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여 주며(민 27 장),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

Chapters 28–29 conclude with the continual offerings and the appointed festivals. Yisrael's covenant life is sustained through continual worship, remembrance, and repentance before YHWH.	민수기 28–29 장은 매일의 제사와 절기를 통해 마무리된다. 언약 백성의 삶은 지속적인 예배와 기억과 회개를 통해 유지된다.
--	--

Central Pattern

Luke's warning about repentance mirrors Yisrael's history. Judgment is never arbitrary. Mercy always precedes it, but persistent rebellion eventually bears its own consequences.	예호수아의 회개 촉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확히 연결된다. 심판은 결코 임의적이지 않다. 자비는 언제나 심판보다 먼저 오지만, 지속적인 반역은 결국 그 열매를 맺는다.
---	---

Prophetic Layer (Yerumiyahu 1:1–2:3)

Prophetic Background

Yerumiyahu begins his ministry by being appointed "to pluck up and to break down...to build and to plant" (Jer. 1:10). Judgment and restoration are always held together.	예언서의 배경 예레미야는 "뽑고 파괴하며...건설하고 심게 하려 함이라"(렘 1:10)는 사명을 받는다. 심판과 회복은 항상 함께 나타난다.
YHWH remembers Yisrael's early devotion: "I remember the kindness of your youth...when you followed Me in the wilderness" (Jer. 2:2).	야훼께서는 "네 청년의 때의 인애...광야에서 나를 따르던 때를 기억한다"(렘 2:2)고 말씀하신다.
Yisrael was originally called "holy to YHWH, the firstfruits of His harvest" (Jer. 2:3).	이스라엘은 본래 "야훼께 성결한 자요 그의 첫 열매"(렘 2:3)로 부름을 받았다.

Yerumiyahu and Luke Together

Yerumiyahu calls Yisrael back before destruction comes. Yehoshua issues the same call centuries later. Both reveal that YHWH desires repentance far more than punishment.	예레미야는 멸망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고 외친다. 수세기 후 예호수아도 동일한 부르심을 전하신다. 두 본문 모두 야훼께서 심판보다 회개를 더 원하심을 보여 준다.
---	---

Hidden Pearl

1. Phinehas and the Barren Fig Tree

At first these seem opposite. Phinehas acts immediately, while the fig tree receives another year. Yet both reveal the same divine character.

Sin must ultimately be removed, but mercy always seeks repentance first. Phinehas stopped the plague because Yisrael refused to stop sin. The gardener delays judgment because fruit may yet appear.

처음에는 두 장면이 서로 반대처럼 보인다. 비느하스는 즉시 행동하지만 무화과나무는 한 해를 더 허락받는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죄는 결국 제거되어야 하지만 자비는 먼저 회개를 기다린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죄를 멈추지 않았기에 재앙을 멈추었다. 반면 농부는 열매가 맺힐 가능성을 위해 심판을 미룬다.

2. The Census and the Fig Tree

The new census represents those who survived because they learned from the failures of the previous generation.

The barren fig tree likewise stands between destruction and renewal. Repentance determines which generation one belongs to.

새로운 인구조사는 이전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살아남은 사람들을 나타낸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역시 멸망과 새 출발 사이에 서 있다. 어느 세대에 속할지는 회개가 결정한다.

3. Yerumiyahu's Firstfruits and Yehoshua's Fruit

Yerumiyahu calls Yisrael the "firstfruits." Yehoshua looks for fruit on the fig tree. The image is identical. YHWH seeks not merely existence but covenant fruitfulness.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부른다. 예호수아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다. 같은 그림이다. 야훼께서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언약의 열매를 찾으신다.

Rabbinic and Messianic Insights

Rashi explains that Phinehas restored covenant order by removing public rebellion before it spread throughout Yisrael.

라시는 비느하스가 공개적인 반역을 제거함으로써 언약의 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한다.

Ramban notes that the covenant of peace demonstrates that true zeal restores life rather than producing violence for its own sake.

Midrash Rabbah repeatedly portrays YHWH as delaying judgment so that repentance may occur, a theme reflected in the extra year granted to the fig tree.

The **Zohar** teaches that repentance (*teshuvah*) repairs the channels of divine blessing. When Yisrael returns, judgment itself becomes transformed into mercy.

Yehoshua fulfills these themes by calling Yisrael not merely to avoid judgment but to become fruitful branches within YHWH's covenant.

람반은 평화의 언약이 참된 열심은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민드라쉬 라바는 야훼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미루신다고 반복해서 가르치며, 이는 무화과나무에 허락된 한 해와 연결된다.

조하르는 회개(*תשובה*)가 신적 축복의 통로를 회복시킨다고 가르친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심판 자체도 자비로 변화된다.

예호수아께서는 단지 심판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고 부르심으로 이 모든 주제를 완성하신다.

The Pearl

Luke 13 is not primarily about tragedy; it is about opportunity.

Numbers teaches that one generation fell while another entered because of repentance and covenant faithfulness.

Yerumiyahu reminds Yisrael that YHWH still remembers her first love and desires restoration.

Yehoshua therefore warns that every person lives during the "extra year" represented by the barren fig tree. Every day of mercy is another invitation to bear fruit worthy of repentance.

누가복음 13 장의 중심은 비극이 아니라 기회이다.

민수기는 한 세대는 넘어지고 다른 세대는 회개와 언약의 신실함으로 들어갔음을 보여 준다.

예레미야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며 회복을 원하신다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예호수아께서는 모든 사람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허락된 "추가된 한 해"와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경고하신다. 자비가 허락된 매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또 하나의 초청이다.

Final Mussar

- | | |
|--|--|
| 1. Do not interpret another person's suffering before examining your own heart. | 1.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
| 2. Repentance is not merely avoiding punishment but returning to covenant fruitfulness. | 2. 회개는 단순히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열매를 회복하는 것이다. |
| 3. Every delay of judgment is an expression of divine mercy. Do not mistake patience for approval. | 3. 심판의 지연은 하나님의 자비이다. 오래 참으심을 죄에 대한 허락으로 착각하지 말라. |
| 4. Like Phinehas, stand courageously for holiness; like the gardener, labor patiently for another's restoration. | 4. 비느하스처럼 거룩함을 위해 담대히 서고, 농부처럼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오래 참으며 수고하라. |
| 5. YHWH seeks fruit, not merely profession. The true measure of covenant life is a transformed heart that bears righteous fruit. | 5. 야훼께서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 언약의 삶은 변화된 마음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명된다. |